

지속가능 농업·농촌 구현 집중

전주농기센터,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 비전 농업분야 4대 추진전략 제시

전주시가 올해 전주푸드 효천직매장을 개점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집중한다.

이와 함께 생산시설 현대화와 유통시스템 개선, 과학영농기술 역량 강화 등 잘 살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할 계획이다.

전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자)는 18일 신년브리핑을 통해 '사람과 환경이 공존하는 미래 지속 가능한 농업'을 비전으로 농업분야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4대 추진전략은 △진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농산물 생산·유통 활성화를 통한 농업경쟁력 강화 △기후변화 대응 지속 가능 농업·농촌 실현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 도시 구현 등이다.

먼저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경우 시는 지역농산물 판로 확보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한 전주푸드 직매장 효천점장을 오는 4월 개점할 예정이다. 효천직매장은 포장 및 패키지 발생을 최소화한 친환경(제로 웨이스트) 특화매장으로 운영

될 예정이다. 2층 마을부엌과 커뮤니티 공간은 전주푸드 홍보와 소비확산을 위해 지역주민에게 개방된다.

또한 시는 지역농산물의 학교·공공급식 공급비율을 확대하고,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농식품 기업 육성과 전주 대표 농산물인 미니리플을 활용한 개발 상품 관광 상품화 등을 통해 농가의 판로를 돕기로 했다. 시민들의 바른 먹거리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식생활 교육도 진행한다.

시는 농산물 생산·유통 지원과 농가소득 보전으로 경영 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환경을 보전하는 데에도 주력한다. 특히 탄소중립 실현 및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밀·보릿짚 등 영농부산물을 소각하는 대신 토지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급 및 원관쟁기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1ha당 토지 환원 시 20만 원, 축사 깔개·조사료 활용 시 10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토지 환원을 위한 장비 지원으로 일관쟁기 구입비의 50%를 지원한다. 시는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농산물산지 유통센터 건립 △생산자 조직화 및 통

합마케팅 활성화 △농산물 공동선별비 및 수출물류비 지원 △중소형 농기계 지원 △공익직불금 및 농민 공익수당 지급 △청년·후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지원 △농업인 용자 지원 △농산물 재해보험·농업인 안전보험·농기계 종합보험 지원 △농로·농수로 농업기반시설 확충 △재해예방 소류지 정비 유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농지이용실태조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한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농가소득도 끌어올릴 수 있도록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일례로 열원이 추가된 관수 시설 지원으로 개화기 과수 등에 피해를 예방하고, 여러 겹 보온커튼과 같은 에너지 절감 시설 지원 및 고부가가치를 지닌 기능성 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생산단지 조성된다. 여기에 시는 귀농교육 기초반과 심화과정을 개설하고, 판매처 다양화를 위한 소셜커머스 마케팅 교육과 청년농업인의 농업용 드론 활용 역량을 지원하는 등 농업 인력 양성 교육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또, △식

물활용 그린스쿨·오피스 조성 기술 시범 △반려식물 공간조성 및 원예기술 교육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장 육성 등 수요자 맞춤형 치유형 도시농업을 확대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끝으로 시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동물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해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놀이터를 조성하고, 유실·유기동물을 사전 예방을 위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사업과 길고양이로 인한 주민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길고양이 급식소 확대 등도 추진한다.

박용자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역 유통 농산물의 철저하고 안전한 관리로 시민 여러분께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업인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농업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 4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인사권 독립 따른 임용장 수여

전주시의회, 개정 지방자치법 관련 소속 공무원 43명에게

전주시의회(의장 강동화)는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관련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 43명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지금까지 의회 사무직원에 대한 인사권은 자치단체장에게 있어 왔으나, 2022년 1월 13일부터 개정 지방자치법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의회사무 직원에 대한 인사권이 시장에서 시의회 의장으로 변경됐다.

강동화 의장은 임용장 수여식에

서 "의회의 인사권 독립은 의회 행정 전문인력 배치로 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선진 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중요한 변화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의회는 인사권 독립에 따른 강화된 권한과 책임을 바탕으로 시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모바일로 간편하게 대형폐기물 배출

전주시·가다, 대형폐기물 관리 플랫폼 '빠기' 도입 위한 업무협약

대형폐기물 배출 시 신고부터 결제, 수거까지 모바일로 편리하게 처리하는 배출 시스템이 오는 3월부터 운영된다.

전주시는 18일 대형폐기물 수거 모바일 앱 개발업체인 (주)가다(대표이사 고재성)와 스마트폰 앱을 대형폐기물 배출·처리하는 스마트 대형폐기물 배출시스템 '빠기'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빠기' 서비스가 도입되면 그간 시청 누리집 또는 전화를 통해 신고한

후 필증을 부착해 배출·처리했던 대형폐기물 처리절차가 모바일로 비대면 신고 후 처리까지 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다. 시는 이날 협약에 따라 오는 2월까지 배출시스템을 구축하고, 3월부터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빠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의 플레이스토어(Android)나 앱스토어(iOS)에서 앱을 무료로 내려 받아야 한다. 이후 폐기물 처리 시 폐기물 물품을 배출하고 앱에 배출장소를 입력한 뒤 배출 물품을 촬영해 올

리면, 앱 내부 사물 인식 AI기능을 통해 견적이 자동 산출되어 금액을 확인하고 결제할 수 있다. 결제 후에는 배출번호가 생성돼 담당자와 수거업체에 전달되기 때문에 별도의 필증 부착 과정 없이 배출신고가 이뤄지게 된다.

이외에도 '빠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무거운 대형폐기물 배출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방문 수거 '내려드림'(유료)과 중고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재활용 중고거래 서비스 '중고매입'을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고재성 (주)가다 대표이사는 "이번 '빠기' 서비스 도입을 통해 전주시의 청소행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전주시가 더욱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겠다"면서 "향후 전주시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폐기물 감량뿐 아니라 재활용률을 높이는 자원순환 성과를 이루겠다"고 밝혔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빠기' 서비스가 도입되면 시민들의 편의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고가전과 가구 등 자원의 재활용 순환까지 연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하는 일상의 불편을 줄이는 공공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역패스 위한 전주형 방역지원금 20만원 지급

식당과 카페 등 방역패스가 적용 중인 전주지역 1만7000여 곳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전주형 방역지원금이 추가 지급된다.

전주시는 방역패스 제도가 전면 확대됨에 따라 식당 등 방역패스 적용 15개종 업소들에게 2022년 전주형 방역지원금을 각각 20만 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2022년 전주형 방역지원금은 △QR체크기 △손소독제 △마스크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급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전라북도 방역지원금(80만 원)을 신청할 경우 자동으로 지급된다.

지급 대상은 △식당·카페(1만1925개소) △학원·교습소(2640개소) △노래방(472개소) △유아시설(446개소) △PC방(292개소) △독서실·스터디카페(120개소) △기타방역패스업소(1420개소) 등 15개종 업소 1만7315개소로, 지원금액은 전액 시비로 약 35억 원이 투입된다.

한편 시는 지난 17일부터 시청 누리집(www.jonju.go.kr) 등을 통해 전라북도 재난지원금 지원 접수를 받고 있다.



전주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교육기관·단체 모집

전주시가 학습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 아동과 노인, 장애인 등이 집 가까운 곳에서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주시평생학습관은 오는 21일까지 '2022년 학습필요계층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참여할 평생교육기관·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학습장소 확보한 평생학습기관·단체가 10명 이상 모인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15회에 걸쳐 진행하면, 시가 강사비를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공모에는 전주지역 비영리 평생교육기관·단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전주시 누리집(jonju.go.kr) 고시·공고 또는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e.jonju.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 작성 후 방문(덕진구 구충목로 11) 또는 이메일(jmi77@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최종 15개 기관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기관에는 각각 120만 원의 프로그램 운영 감사비가 지원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28일 전주시 누리집과 전주시평생학습관 누리집에 발표되며, 시는 오는 2월 중 선정기관 관계자 및 강사들과 사업 추진을 위한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